

## “원유가 현실화” 낙농가 분노 직면

- 낙농육우협, 5월말까지 해결 안되면 초강경 대응키로 -

**한**국낙농육우협회(회장 이승호)는 4월 24일(목) 축산회관에서 이사회를 개최하고, 5월말까지 원유가 현실화가 해결되지 않을 경우 쟁기대회 등 초강경 대응활동을 전개키로 결의하였다.

먼저, 이승호 회장은 미국산 쇠고기 수입재개, 한미FTA 국회비준 문제, 계속되는 사료값 폭등 등 낙농여건이 계속 어려워지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낙농가의 생존권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원유가 현실화가 시급한 당면과제인 만큼, 농가의 단합된 힘으로 반드시 관철시킬 수 있도록 노력하자는 인사말을 전했다.

의안 제1호 원유가 현실화를 위한 대응방안 마련의 건에 대해서는 원유가 현실화 촉구 결의문을 채택하고, 비상대책위원회로의 전환, 도(연합)지회의 연대활동, 협의경과에 따른 단계적인 대응활동 방안 마련을 결의하였다.

채택된 결의문에 따르면, 유업체는 진정성을 담아 원유가 현실화를 위한 논의에 임할 것을, 낙농관련조합장협의회는 공동의 대책

마련에 나설 것을, 또 정부는 조기 원유가 현실화 및 사료값 안정을 위한 근본대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하면서, 5월 31일까지 관철되지 않는다면 강경 투쟁을 전개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조기 원유가 현실화에 대한 농가들의 요구가 거세지고 있는 가운데, 낙농육우협회가 이사회를 통해 원유가 현실화를 재촉하고 활동방안을 마련함에 따라 향후 그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한편, 의안 제2호 여성분과위 인준의 건에 대해서는 이정희 위원장(경기화성, 신하늘목장)을 인준하였으며,

우유 덤판매 근절 노력에 비협조적인 유업체에 대한 강력대응 활동 전개, 사료구매자금 지원 대책 보완, 육우 하나로마트 입점을 비롯한 육우산업 근본대책 마련 등 낙농육우 현안에 대한 지속적인 활동을 집행부로 요구하였다.

